

전남소방, 장흥시대 개막...청사 이전·재난컨트롤타워 강화

옛 장흥교도소 부지에 연면적 5000㎡ 규모

소방학교·특수구조대·의용소방대연합회 집적

전남소방본부는 장흥에 신청사를 마련하고 오는 1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소방본부 신청사는 옛 장흥교도소 부지에 위치해 본부동 4층, 소방서동 2층, 연면적 5000㎡ 규모로 건립했다.

사업비는 총 168억원 가량을 투입했으며, 지난 2019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년의 사업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준공을 마쳤다. 119신고 접수시스템 이전을 시작으로 오는 17일 본부 이전이 마무리된다. 특히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소방학교와 특수구조대,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재난대응기관이 한 곳으로 집중됐다.

이로써 소방자원 통합관리가 가능한 클러스터가 구축돼 더욱 강화된 재난 컨트롤타워 역

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전남소방본부 장흥 이전으로 소방공무원 200여 명이 상주 근무하고 소방 관련 민원인 등 유동인구가 연간 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남소방본부는 서부권인 무안 소재 전남도청에 자리하고 있어 여수·광양 등 동부권까지 이동 시간이 2시간 가량 소요돼 대형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웠다.

또 119 긴급구조시스템의 노후화와 재난신고체계 통합에 따라 장비 및 인력 보강이 필요했으나 도청사 내에서는 공간 확보가 힘든 상황이었다.

전남소방본부 신청사를 전남도의 중앙으로



재배치하고 기능을 강화해 전남 전 지역 출동 시간을 1시간대로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시대를 불문하고

소방정책의 1순위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며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전남소방은 도민이 보내주시는 성원과 기대에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소방공무원의 정원은 4008명이며, 도의용소방대원도 1만1781명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정흥=김도영기자

‘운동장 대신 온라인’ 코로나19가 바꾼 졸업식

광주·전남교육청, 학사일정 조정
등교일수 조정 졸업식 1월로 변경



코로나19가 각급 학교의 졸업식 풍경을 바꾸고 있다.

11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으로 2월 졸업식 공식이 1월로 바뀌고 있다.

광주 지역 각급 학교 중 이달 졸업식을 진행했거나 예정인 학교는 296개교다. 다음달 중 졸업식이 예정된 학교는 19개교에 불과하다.

전남 각급 학교 중 이달 졸업식을 진행했거나 예정인 학교는 초등학교 226개교, 중학교 118개교, 고등학교 51개교다.

다음달에는 초등학교 198개교, 중학교 131개교, 고등학교 91개교가 졸업식을 진행한다. 전남 초등학교 중 여수 여안초등학교와 화순 이양초등학교는 졸업생이 없다.

각급 학교별 졸업식 상당 수가 1월로 앞

당겨진 것은 코로나19로 등교일수가 조정됐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은 졸업생 수가 많은 도심권 학교에 온라인 또는 학급별 졸업식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전남 지역에 많은 작은 학교(학생수 60인 미만)의 경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대면 졸업식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도심권 학교들은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최소화 하고 있다.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모두 모여 졸업식을 하고, 친구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일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김정환조인호기자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착공 임박...공사기간 주차전쟁은 속제

이달말 사업자 선정...다음달 첫 삽
608면→1600면 확대·교통난 해소
공사 16개월동안 기존 주차장 폐쇄

광주시가 ‘미니 용산역’ 성격의 2000억 원대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를 포기하는 대신 대체시설로 추진해온 주차빌딩이 다음달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사 기간 1년4개월 동안 기존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전쟁과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1일 광주시와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운영주체인 코레일은 최근 조달청에 의뢰해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신축공사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추정금액은 216억 원으로, 부대 비용과 대체 주차장 조성비용 등을 감안하면 총사업비는 370억 원에 이른다.

주차빌딩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현재 제1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4만535㎡(1만2162평)에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지며, 차량 1600대

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 제1주차장 현재 주차면적(401면)의 4배에 이른다.

메인 공사 낙찰자는 오는 29일 ‘나라장터’를 통해 결정·공개되며, 착공은 늦어도 2월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0일(1년4개월) 이어서 2022년 5월부터는 송정역 일대 주차난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사기간 주차대란으로, 현재 주차공간 중 1주차장(401면) 전체와 후면 주차장(207면) 중 절반 가량이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광주시, 광산구 등은 후면 공영주차장(52면)과 역 앞 광장 주차장(130면), 국유지 개발(80면), 인근 시설 임대(80여면) 등을 통해 340면의 대체 주차공간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현재 주차공간에 60~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차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주역과 송정역을 하루 30차례 오가는 셔틀열차의 경우도 KTX와 SRT 운행시간이 연동돼 있어 추가 운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도교통부 수요예측 실례에 따른 후유증이 주차빌딩 신축과 추가 주차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도부는 송정역 평균 이용객을 8000명으로 예상하고 2015년 역사를 증축했으나 2015년 KTX, 2016년 수서SRT 개통으로 주말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16년 1만6164명, 2017년 2만2504명, 2018년 2만4507명, 2019년 2만5646명으로, 당초 예상보다 3배를 웃돌면서 송정역 일대는 수 년째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각종 행정협약이 지연되면서 착공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공사 기간에 주차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완공시점까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각종 행정협약이 지연되면서 착공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공사 기간에 주차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완공시점까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형택기자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